

재일한인 중소규모 자영업자의 직업과 민족 간의 유대관계 -오사카 이쿠노구를 사례로-*

조현미**

Co-Ethnic Relationships and Tendencies of Korean Entrepreneurs in Japan: A Case Study of Ikuno Area, Osaka*

HyunMi Jo**

요약 : 일본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와 차별은 많은 재일한인들로 하여금 민족적 네트워크와 종족자본을 이용한 자영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본 연구는 재일한인 중소규모 자영업자의 직업과 민족 간의 유대관계가 시대와 세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민족 간의 유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본 고에서는 재일한인 자영업자의 종족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시기별로 분석했다. 재일한인의 경우, 일본으로의 이주 초기에는 주로 노동자 계층이 많았으나 점차 전문직종사자와 자영업자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에는 시대적인 흐름과 함께 재일한인의 세대교체와 학력신장이라는 요소가 작용하였지만, 그러한 요소가 작용할 수 있도록 재일한인에 관한 일본인 및 일본사회의 인식, 그리고 재일한인을 비롯한 재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변화해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종족자원의 이용 측면에서 볼 때, 자영업 종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초기단계에는 민족 금융기관의 이용이나 기업간의 거래, 종업원 고용에 이르기까지 종족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였고, 주요 고객 역시 같은 민족을 대상으로 한 업종이 많았다. 하지만 점차 재일한인의 직업구조가 다양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종족자원에 대한 의존도도 역시 다양화되어 갔다. 민족 간의 유대관계의 유지 혹은 배제는 그들을 둘러싼 사회 및 경제구조에 따라서 좌우되고, 그 결과는 다시 재일한인과 일본인과의 관계를 좌우한다.

주요어 : 재일한인, 자영업자, 민족간 유대관계, 종족자원, 민족금융기관

Abstract : Many Korean migrants in Japan have established small businesses using their ethnic networks as they were discriminated and excluded from Japanese society and labour marke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nges in characteristics of Korean migrants' businesses by generation, focusing on the role of co-ethnic relationships including ethnic networks and resources on their businesses. This study analyzed Korean migrants' dependence of the ethnic resource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thnic. When Koreans first moved to Japan, laborers amounted the most, but the number of the professionals and the small business owners has increased gradually. This change was influenced by the change of generation and the improvement of education, as well as recognition of Japanese society and the change of policies toward Korean migrants in Japan. In early times when the number of small business owners started to increase, many cases such as a business, an employment, the use of Korean banks used to depend on ethnic resources. Also there were many businesses of which main customers were Koreans. However, the dependence of the ethnic resources has become diverse as the structure of the occupation has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42-B00127)

**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mjo@knu.ac.kr

changed. The maintenance or exclusion of co-ethnic relationship depends on the structure of society and economy, and its result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migrants in Japan and Japanese.

Key Words : Korean migrants in Japan, entrepreneurs, co-ethnic relationships, ethnic resources, Korean banks

1. 서언

우리민족의 해외로의 이주역사는 180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생활을 위한 월경농업이 주를 이루었던 만주와 연해주지방으로의 이주를 비롯하여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을 위한 미국과 중국 등지로의 이주, 식민지정책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제에 의하여 강행되었던 일본과 러시아 극동지역으로의 강제이주, 그리고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무 토지 농민들의 일본과 중국 등지로의 이주 등,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이주자의 계층과 이주목적은 달라졌다. 1945년, 일제식민지로부터의 해방과 함께 많은 해외이주자가 귀국하였다. 하지만, 조국에서의 경제적인 기반의 상실 등의 이유로 귀국하지 못하고 남게 된 재외한인의 수는 2005년 재외동포재단의 통계에 따르면 151개국 565만 명에 이른다. 그 중에서도 미국에 약 200만 명, 중국에 189만 명, 일본에 64만 명, 독립국가 연합에 52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 4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이 517만 명으로 재외한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재외한인들을 둘러싼 사회적·경제적인 환경은 다양한 방면으로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은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구조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제까지의 해외이주민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동향의 많은 부분이 이주민의 경제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오사카시(大阪市) 이쿠노구(生野区)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재일한인¹⁾ 중소기업 자영업자²⁾의 직업과 민족 간의 유대관계가 시대와 세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민족 간의 유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나, 그 중에서도 다음의 세 가지 요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주류사회의 인식과

정책, 소수민족의 직업구조, 그리고 소수민족이 위치하는 사회적 계층이 그것으로, 이들 세 요인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민족 간의 결집력에 영향을 미친다.

재일한인의 경우, 일본으로의 이주 초기에는 주로 노동자 계층이 많았으나 전문직과 자영업자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구조의 변화는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의 상승과 사회계층에 있어서의 이동을 동반한다. 이러한 변화에는 물론 시대적인 흐름과 함께 재일한인의 세대교체와 학력신장이라는 요소가 작용하고 있지만, 그러한 요소가 작용할 수 있도록 재일한인에 관한 일본인 및 일본사회의 인식, 그리고 재일한인을 비롯한 재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변화해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결국, 위의 세 요소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민족 간의 결집력 및 네트워크의 강약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민족 간의 유대관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본 고에서는 재일한인 자영업자의 종족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재일한인의 가장 큰 집주지역인 오사카시 이쿠노구 일대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실시한 설문조사³⁾와 2006년 8월에 실시한 심층면담의 결과를 이제까지의 재일한인에 관한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그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2. 이민자 집단의 경제구조에 관한 연구동향

도시 이민자 집단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나는 주류집단과 비주류 이민 집단의 이질성 지속여부에 따른 문화적 적응에 관한 연구들이며, 또 하나는 이민 집단이 주류사회 경제구조 속에 어떠한 방식으로 포섭되는가에 초점을 맞춘 경제적

적응에 관한 연구들이다(이영민, 1998).

Perlmann(1988)⁴⁾에 의하면 이민자 집단의 적응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변수가 중요하다고 한다. 첫 번째는 이민자 집단의 이주 전 경험과 이주의 형태이며, 두 번째는 새로운 환경에서 받게 되는 차별의 정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주국가의 경제적 구조와 계급구조에서 이민자 집단이 점하게 되는 위치이다. 첫 번째 변수는 이민자 집단의 특성과 이주과정의 통제 가능 여부와 관련이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변수는 이민자 집단이 이주 국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의 정도 및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의 점유와 관련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유대인집단과 흑인집단은 이주의 형태에서부터 차이가 있어서 그들의 미국에서의 적응은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물론 그러한 차이에는 인종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였지만, 재일한인에 관한 본 연구는 인종적인 차이는 고려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편, 이민자 집단이 이주국가의 경제구조 속에 어떠한 형태로 포섭되는가에 관한 설명으로는 중간상인 소수인종이론, 인종적 특수시장이론, 이민자 소기업가론 등 크게 세 가지가 있다(이혜경, 1996; Min, 1991; 1994; Bonacich, 1973). 그 중에서도 특히 재미한인 자영업자의 주류사회에서의 경제적인 적응양식을 보다 적절히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흔히 인용되는 것이 중간상인 소수인종이론으로서, 엘리트와 대중,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는 중간자로서의 재미한인 경영자들의 역할을 잘 설명하고 있다(Min, 1991; 1994). 원래 중간상인 소수인종이론은 언어문제나 낮은 교육수준으로 인하여 소수의 이민자 집단이 다수집단의 경제구조 속에 정규직으로 잠입하기가 어려워 자영업에 종사하게 된다는 가설이지만, 재미한인의 자영업으로의 집중은 미국과 유럽이라는 고도 자본주의 사회가 후기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자영업이 부활하는 추세에 이들 이민자 집단이 기회를 잡은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이혜경, 1996). 그와 함께 재미한인들이 자영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지위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로서 '이민자 소기업론'이 있다(유의영, 2004). 즉,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직종에 가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되면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사장'이라는 직위를 통하여 신분상승을 경험하고 지위 불일치에서 초래하는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일한인의 경우, 도항의 배경과 목적에서부터 재미한인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사회적인 배제로 인하여 자신들의 기대치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던 재일한인들이 현재와 같은 경제적인 지위를 차지하기까지에는 세대와 시대의 흐름을 거쳐, 기술과 자금의 축적을 통한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현재 경제활동의 중심세대는 2세·3세로서, 그들은 부모세대와 비교하여 고학력자들이며 언어적으로도 자유롭다. 하지만 그들의 학력수준과 그들이 획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지위의 불일치는 부모세대로부터 이어받은 가업의 계승 혹은 독자적인 창업과 같은 불가피한 자영업의 선택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재미한인과 원인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므로 재일한인 자영업자에 관해서는 중간상인 소수인종이론과 이민자 소기업가론을 복합적으로 적용시켜 분석해야 할 것이다.

한편, 많은 학자들이 이민자들의 자영업 종사 비율이 본국인들보다 현저하게 높으며, 이들은 창업 혹은 경영에 있어서 민족자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장선미, 2004; Min, 1988; 윤인진, 1995). 그 중에서도 장선미(2004)의 재미한인의 사업운영자금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면, 약 48.4%가 용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친척이나 친구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가 6.6%이상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민족자본과 같은 종족자원⁵⁾에 관한 실증적 연구(설병수, 2002; 조현미, 2000)에 의하면 대개의 한인 사업가들은 경영과정에서 같은 민족이라는 종족자원을 광범위하게 동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가들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기도 했으나, 때로는 종족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때, 동업종 종사자간, 그리고 경영자와 종업원간의 신뢰 혹은 갈등의 요인은 그들의 업종 및 고객층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민족간의 유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크게 기업의 경영방식과 종족자원에 대한 의존도의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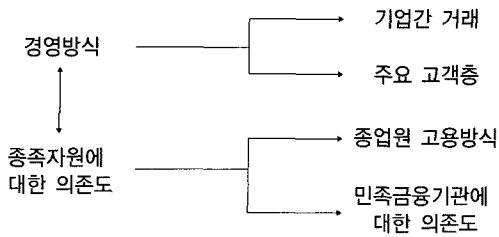


그림 1. 민족간 유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가지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재일한인 자영업자들의 경영방식을 통찰하여서는 민족 간의 거래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이때의 거래관계는 기업간의 거래는 물론 주요 고객층까지를 포함한다. 그리고 종업원의 고용방식에 있어서는 종업원의 국적에 대한 고려 여부와 민족간 네트워크의 이용정도를 분석했다. 이러한 요소는 재일한인 자영업자들의 민족 간 유대관계를 파악하는데 주요한 지표가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많은 이주민들이 정착 초기단계에는 종족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나, 점차 다수사회로의 적응과 정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의존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조현미, 2000). 이러한 의존도는 사회적·정치적인 외부환경이 변화하여 소수 민족 집단에 대한 제재가 강해지게 되면 다시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종족자원의 이용척도로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민족금융기관의 존재인데, 민족금융기관은 일반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어지지 않은 상태의 초기 이주민들에게 있어서 자족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3. 재일한인의 직업의 변천과 민족관계

1) 직업의 변천

(1) 식민지시기

재일한인의 일본으로의 이주는 1910년대부터 시작되지만 조선인⁶⁾인구는 1920년대 이후부터 급증하여 1945년까지 계속하여 증가했다. 초기의 단신남성 중심

의 노동자형 이민에서 서서히 부모, 처자를 동반하는 ‘舉家離村型 移民’으로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조선인의 직업은 건설, 토목, 광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미숙련, 단순작업과 같은 하층노동자가 중심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었다. 중노동, 열악한 환경, 저임금(평균 일 본인의 80%이하의 민족간의 임금격차가 존재하였음)의 전형적인 3D산업에 종사하면서 산업재해에 대하여도 무권리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조선인들은 1920년대에 이미 민족 간의 연계를 통한 취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민족 자족집단의 형성은 생존을 위한 투쟁 수단이기도 했다(曹賢美, 1998; 靑木, 2000).

한편, 도시 최하층 노동시장으로의 조선인의 유입은 일본인 노동자와의 경쟁을 의미하였고, 하층계층에서의 민족 간의 경쟁은 더욱 심한 민족적 배제를 유발하였다(西成田, 1997). 이렇게 극심한 빈곤과 차별아래 놓여있었던 조선인 노동자들의 희망은 상업적인 자립을 도모하던지, 어엿한 직공이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직업에 대한 희망은 해방 후 거의 30년이 지나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나타났다.⁷⁾

(2) 해방이후부터 현재까지

1945년의 일본의 패전과 함께 민간인으로 복귀된 군인들과 해외로부터의 귀국자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공급이 급증하게 되어 많은 조선인들이 직업을 잃게 된다.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도태된 조선인들은 영세 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던지,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단순 육체노동이외에는 생활할 방법이 없게 된다. 1950년대에는 해방 전과 비교해서 상업이나 서비스업 종사자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고물상이 약 반을 차지하고 있었다(徐龍達, 1987).

해방 후 약 20년이 경과하여 일본의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적인 상황도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1974년과 1992년, 그리고 2000년의 일본인과 재일한인의 직업구성상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표 1과 같다.

1974년의 양 민족의 직업별 구성비율을 보면, 재일한인은 일본인과 비교하여 농림어업 종사자비율은 낮고 사무직 종사자는 약간 높은 것 이외에는 양 민족 간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즉, 일본의 경우, 1974년 단계에는 아직 1차 산업의 종사자수가 비교적

표 1. 일본인과 재일한인의 직종별 비율

직업	일본인			재일한인		
	1974년	1992년	2000년	1974년	1992년	2000년
전문직·기술직 종사자	7.2	12	13.6	8.2	15.1	8.7
관리직 종사자	3.9	3.6	2.9	5.6	4.4	5.6
사무직 종사자	16.9	19.7	19.5	21.8	23.2	13.8
판매직 종사자	12.6	14.2	14.9	12.4	14.7	18.1
서비스직 종사자	6.6	7.6	8.9	6.9	7.4	17.1
운수·통신 종사자	4.8	3.6	3.7	5	3.4	4.1
보안직 종사자	1.2	1.2	1.6	1.4	1.3	0.3
생산공정, 노무작업자	32.8	31	28.7	35.7	28.1	29
농림·어업 종사자	14.1	6.4	5	3	1.3	0.3
기타	0	0.7	1.2	0	1.1	3.1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주 : 1974년과 1992년의 일본인의 직업은 총무성 통계국의 '취업구조기본조사보고 1' 을, 재일한인의 직업은 '재류 외국인통계' 자료를 이용; 2000년의 직업은 국제조사 이용

많았지만, 양 민족 공통으로 생산 공정 및 노무 작업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 중흥기의 직업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인도 점차 1차 산업의 비중은 낮아지고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수가 증가하였다. 재일한인은 1992년을 제외하고는 일본인보다 전문직과 사무직의 비율이 낮아지고 판매직과 서비스직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졌다. 2000년 현재 양 민족 모두 생산 공정 및 노무 작업자가 현저하게 많은 것은 유사하나, 일본인과는 반대로 재일한인의 경우 전문직과 사무직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판매직과 서비스직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일본의 거품경제의 붕괴이후 경기변동의 영향을 일본인보다 경제구조의 하층에 위치하고 있던 재일한인이 더 많이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관리직 종사자는 재일한인이 일본인보다 계속하여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이들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기업규모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현재 재일한인이 주로 종사하고 있는 업종으로는 첫 번째 건설업, 두 번째 제조업(금속, 비닐, 플라스틱 등), 세 번째 도·소매업(식품 등), 넷째 운송업(화물, 택시 등), 다섯째 서비스업(부동산, 요식업, 파칭코점 등의 유흥업 등)과 같은 것이 있다. 이러한 업종

의 성격을 볼 때, 초기 정착단계와 비교하여 재일한인들의 직업은 점차 다양화하고 있지만, 건설업의 경우 공공사업의 하도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등 재일한인들의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제약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그들의 계층분화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직업과 민족관계

1980년에 재일동포 노동문제연구회 사무국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在日高麗勞動者連盟, 1992), 전체 응답자 126명 중에서 종업원 30명 미만의 기업경영자는 57.7%, 100명 이상의 경영자는 19.0%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전체 기업 경영규모에 있어서의 각각 40%, 42.2%와 비교하여 재일한인 기업의 규모가 지극히 영세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취업방법에 관해서는(표 2), 아는 사람이나 친척의 소개를 통하여 취업한 자가 56.7%였고, 여기에 민족단체를 통한 취업 9.7%를 더하면 전체의 66.7%가 어떤 형태로든 민족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의 추천이나 직업안내소와 같은 공공단체를 통한 취업자는 극히 소수라는 점에서 일본 경제사회의 진출에 많은 장애가 있음을 알 수

표 2. 재일한인의 취업방법 (단위 : %)

취업방법	남	여	계
광고	10.1	13.5	11.1
아는 사람 소개	37.1	48.6	40.5
친척소개	20.2	8.1	16.7
학교추천	6.7	10.8	7.9
민족단체	7.9	13.5	9.5
직업안내소	2.2	-	1.6
기타	6.7	-	4.8
무응답	9.0	5.4	7.9
계	100	100	100

자료 : 재일동포 노동문제 사무국조사(1980)
유효수 : 126명

표 3. 재일한인 취업자의 기업주와의 관계

경영자의 국적	실수(%)
재일동포	44(25.3)
본국의 한국인	4(2.3)
일본인	118(67.8)
기타 외국인	1(0.6)
알 수 없음	4(2.3)
무응답	3(1.7)
계	174(100.0)

출처 : 金明秀, 1996, 25.

있다. 재일동포 노동문제연구회가 실시한 이 조사는 조사대상자의 65 %가 20대로서, 80년대 현재의 구직 및 취업연령층의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93년 재일한인 청년회 회원을 대상으로 전국적 규모로 실시되었던 金明秀의 조사에 의하면(표 3), 재일한인 청년들이 취업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자의 국적은 일본인이 67.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재일한인 혹은 본국의 한국인인 경우는 27.6%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기의 취업자들의 일본기업으로의 진출의 증가가 두드러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이제까지 폐쇄적이었던 주류사회의 변화와 함께 재일한인 사회도 경제적·사회적으로 다양화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재일한인

직업 환경의 다양화와 주류사회의 개방화는 세계화와 일본경제의 변동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해 간다.

4. 오사카 이쿠노구의 재일한인

1) 이쿠노구의 지역적 특성과 재일한인

오사카시는 전체인구의 10%가 외국인으로, 외국인 등록자수는 2003년 12월말 현재 115개국, 122,063명이다. 국적별로 보면 한국·조선적이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91,541명으로 가장 많다. 그 중에서도 이쿠노구는 주민의 1/4이 재일한인이다. 특히 이쿠노구의 북반부에 해당하는 이카이노(猪飼野)는 일본에서 가장 대표적인 재일한인 거주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1973년 오사카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이카이노란 지명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는 재일한인이 밀집하고 있는 슬럼지구라는 지역에 대한 이미지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카이노란 지명은 재일한인의 문학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재일한인의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표명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남아있다.

한편, 이쿠노구는 도·소매업과 함께 금속가공, 고무제품 관계의 제조업이 많은 중소기업지역이면서 대표적인 상업지역이다.⁸⁾ 이쿠노구의 제조업 중에서도 샌들·슈즈의 생산은 전국 생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쿠노구의 제조업체 85사를 대상으로 한 成田(1995)의 조사 결과, 경영자의 경영기반은 근무처에서의 독립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부모의 사업을 이어 받는 경우이며, 도매업자로부터의 수주에 의한 생산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창업자금을 대해서는 대부분이 자기 자금, 자기 자금과 시중은행, 또는 신용조합과 함께 공적 자금의 이용도 포함하고 있었으며 전통적인 '계'의 이용은 적었다.

2) 이쿠노구 일대의 재일한인의 자영업 현황

(1) 자영업 현황

표 4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대상자들의 직업

표 4. 설문대상자의 직업별 성별 분포 (단위: 명)

업종	남	여	전체
요식업	9	5	14
금융, 보험업	2	0	2
유기업(파친코, 마작 등)	2	1	3
도·소매업	5	5	10
건설업	13	1	14
운수·통신업	2	0	2
제조업	13	3	16
부동산업	4	0	4
폐품회수, 고물상	2	0	2
폐기물처리업	3	0	3
이·미용업	0	2	2
전체	55	17	72

자료: 설문조사(2005.12~2006.1)

표 5. 업종별 사업소 형태 (단위: 개소)

업종 \ 사업소형태	주택 겸용	사업소 전용	전체
요식업	3	11	14
금융, 보험업	1	1	2
유기업(파친코, 마작 등)	0	3	3
도·소매업	3	7	10
건설업	8	6	14
운수·통신업	1	1	2
제조업	6	9	15
부동산업	0	4	4
폐품회수, 고물상	1	1	2
폐기물처리업	3	0	3
이·미용업	1	1	2
전체	27	44	71

자료: 설문조사(2005.12~2006.1)

별·성별 분포이다. 전체 조사자 72명 중에서 남자가 55명으로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요식업과 도·소매업 종사자가 많고 그 이외의 유기업이나 폐기물 처리업과 같은 이른바 재일한인산업이라고 불리는 업종 종사자가 골고루 분포하고 있어 72명이라는 한정된 숫자이기는 하지만 이쿠노구

의 재일한인의 자영업현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전원이 30대에서 50대였으며, 한국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건너간 지 20년 이상 되는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일본에서 출생하였다.

이들의 업종별 사업소형태를 보면(표 5), 요식업이나 도·소매업 종사자는 업소와 주택이 분리되어 있는 사업소 전용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제조업과 건설업은 업소와 주택 겸용의 형태가 많았다. 재일한인 자영업자 중에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기술을 익힌 후 창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재를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독립하여 경영규모를 확대시켜나간 사람들과 그 자녀들이 많다(靑木秀男, 2000). 그러한 경우 자신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일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주로 가족 노동력만으로 제품을 생산하다가 규모의 확장과 함께 종업원을 조금씩 늘려가는 형태가 많았으므로 지금까지도 주택겸용의 업소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재일한인 자영업자들의 영업규모가 아직까지 영세한 상태에 머물러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한편 조사대상자들의 70%이상이 10년 이상 현재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30년 이상 동 직종 종사자도 11%에 달하고 있다.

2) 민족금융기관의 역할의 변화

일반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가 힘들었던 재일한인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가 일본인보다 어려웠다.⁹⁾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같은 민족끼리의 '계' 조직을 통하여 모은 자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재일한국인 신용조합협회(약칭, 한신협)였다(면담조사에 의함). 이렇게 재일한인들의 사회적인 요구로 인해 탄생한 민족금융기관은 점차 그 수가 늘어나고 규모면에서도 확장되었다.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에 힘입어 민족금융기관도 성장을 거듭하여 1993년 말 현재 한국계 은행인 '興銀'은 전국적으로 35개의 조합에 177개의 점포수와 211,311명의 조합원의 총 예금액 2,714,921백만 엔의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북한계 은행인 '朝銀'은 38개의 조합에 178개의 점포, 그리고 218,673명의 조합원수와 총 예금액 2,474,169백만 엔의 규모로까지 성

표 6. 업종별 사업자금 조달방법

업종 \ 사업자금 조달 방법	본인 자금	조선계 금융기관	일반 은행	일반 신용조합	공적 용자	친척, 지인	샐러리맨 금융	기타	계
요식업	2	2	4	2	6	2	0	0	18
금융·보험업	1	1	0	0	0	0	0	0	2
유기업	0	0	2	1	0	0	0	1	4
도·소매업	1	1	4	1	2	0	1	1	11
건설업	2	1	8	2	8	1	0	1	23
운수·통신업	1	0	1	0	0	0	0	0	2
제조업	2	6	5	4	3	1	1	0	22
부동산업	0	1	4	2	1	1	0	1	10
폐기물 처리업	1	3	3	2	2	1	0	1	13
이·미용업	0	0	1	0	0	0	0	1	2
총계	10	15	32	14	22	6	2	6	107

자료 : 설문조사(복수응답)

장하기에 이르렀다(関寛植, 1994, 307). 이들 민족금융기관은 재일한인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운영자금을 대출해줌으로서 재일한인기업의 육성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최석신·임채완 등, 2005, 79).

그런데 일본의 거품경제가 붕괴되면서 1980년대부터 은행들의 도산과 합병이 잇따르게 되었다. 대출해줄 곳이 줄어든 은행들이 재일한인 우량기업들과 거래를 하기 시작함에 따라 재일한인 신용조합의 고객이 크게 감소하게 되어(최석신·임채완 등, 2005, 85) 민족금융기관은 모두 파산하게 된다.¹⁰⁾ 그 후 오사카의 '조은'은 '미래신용조합'으로 명칭이 바뀌고(각 지자체별로 명칭이 다름), 일본금융청의 지도와 간섭을 받게 되었으며 용자조건도 일반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까다로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민족금융기관 내부사정의 변화는 민족금융에 대한 재일동포의 의존도에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쿠노구의 재일한인 자영업자 중에서 사업자금을 위하여 민족금융기관을 이용한 수는 전체의 14%에 지나지 않고, 일반은행이나 신용조합과 같은 일본인금융기관이나 공적인 용자를 이용한 수가 6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표 6). 업종별로 볼 때에는 건설업종사자는 민족은행과 일반은행을 같은 비율로 이용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일반신용조합과 공적용자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족금융기관은 용자조건이 까다로워진 반면, 재일한인 자영업자들은 예전에 비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일반은행이 요구하는 용자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민족금융기관의 매력이 일반은행의 그것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전 업종에 있어서 민족금융 이용자가 적은 가운데 제조업과 폐기물 처리업 종사자의 민족금융 이용률은 비교적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조사 대상자의 연령 및 경영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들 업종 경영자는 절반이상이 50대이상의 연령층으로 종업원 규모 10인 이하이고, 사업장이 주택과 겸용인 자가 많다는 사실에서 비교적 영세규모의 자영업자의 경우 아직도 민족계 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3) 재일한인 자영업자의 민족간 유대관계

민족간 유대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상공회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한때 재일한인 자영업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상공회 회원으로서 상공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상공회의 목적은 재일한인 상공인의 권리를 지키고 기업발전에 기여하고

자 하는 것으로서, 상공인들에게 세무관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도와주는 것이 주 임무이다. 하지만 일본의 계속된 불경기의 여파로 한인 기업 역시 많은 타격을 받고 있고, 현재 조금씩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대기업 이외의 중소기업은 여전히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공회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기업운영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민족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하고 있다 (상공회 임원과의 면담).

하지만 상공회측의 주장과는 달리 영세 자영업자들과의 면담에서는 상공회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세금 확정 신고 기간뿐이라는 사람들도 많았다.

한국음식점을 경영하는 A씨(50)는 다음과 같이 상공회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상공회를 통하면 세금을 조절해서 신고해주시기 때문에 납세액을 줄일 수 있어서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만 그 이외에는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나마 확정 신고마지도 일본인 전문 계리사(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에 해당함)에게 맡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상공회와는 전혀 관계를 가지지 않고 있다. 가게는 처음부터 자금이 하락하는 범위에서 작은 규모로 시작하여 점차 조금씩 규모를 늘려갔기 때문에 융자문제로 곤란을 겪은 적은 없었다. 혹시나 상공회 임원들이 회식이나, 행사후의 뒷풀이로 우리 점포를 이용한다고 해도 그다지 반갑지 않다. 선심을 베풀 듯이 '식당에 가 줬으니까' 하며 당연하게 다음에 이런 저런 요구를 해오는 것이 싫다. 한국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지만 일본인 고객들만을 상대하고 있으며, 일본인 입맛에 맞춘 요리법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고 싶다. 요즘은 한류열풍으로 일본인들의 한국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

A씨는 위와 같이 민족과의 유대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의견은 다른 재일한인 자영업자들에게서도 나타났다. 심지어 도·소매업 종사자 중에는 일본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자신의 국적을 숨기는 사람도 있었다. B씨(20대 후반)는 자전거점을 경영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한 후 재일동포 상공회에서 2년간 근무했으며, 동포기업 3~4개소를 2~3년씩 근무한 경력이 있다. 하지만 자전거 관계의 스승에게서 6년간 수업한 것이 계기가 되어 현재의 직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사업자금은 부모님의 신용으로 '國民生活公庫'에서 용자를 받았다. 고객의 99%는 일본인이며, 조선인과는 별로 접촉하지 않고 있고, 나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사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상점가에서 점포를 경영하는데 조선이라는 것을 당당히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데 국적을 밝히면 일방적으로 거래관계가 끊기게 될 지도 모른다.

B씨는 상점운영에 있어서의 불이익을 꺼려하여 자신의 민족성을 부정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도·소매업뿐 아니라 제조업 종사자인 C씨(40대 초반)의 경우도 위와는 다른 이유로 민족간의 거래를 꺼리고 있었다. C씨는 여러 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아 금형(金型)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다.

재일한인으로서 일본의 대기업에 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기술만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직업을 선택했다. 고교졸업 후 일본인이 경영하는 기업에서 기술을 익힌 후 1990년 독립했다. 요즘은 중국과의 임금격차 때문에 경영하기 힘들다. 전에는 군수목적으로 사용할까봐 기계를 중국에 보낼 수 없었으나 지금은 가능하다. 그래서 나도 대량생산이 필요한 상품은 상하이에 도면을 부쳐서 물건을 제작하고 있다. 상하이의 공장은 전문적으로 하청만을 담당하는 회사로, 일본의 다른 회사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창업할 때는, 일본인 기계 상점에서 나의 기술을 보고 4000만 원 정도하는 기계를 돈을 벌면 갚는다는 조건으로 아무런 담보 없이 빌려주었다.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기계를 갖추게 되었으므로 모아놓은 돈으로 어렵지 않게 창업할 수 있었고, 은행의 융자 같은 것에 의지할 필요가 없었다. 일상생활에서는 동포들과 교제하지만 일 관계는 일본인하고만 한다. 동포와 사업관계를 맺으면 절대 원만한 관계로만 지속되지 않으므로 트러블이 생기는 것이 싫다.

표 7. 종업원 채용방법

채용방법 \ 국적	일본인 채용	일본인 쪽이 좋다고 생각	동포 채용	동포 쪽이 좋다고 생각	뉴커머 한국인	기타	전체
친척, 아는 사람의 소개	4	2	9	10	1	1	27
민족 단체의 소개	0	0	2	0	0	0	2
공개 채용	2	2	2	3	0	0	9
소개와 공개채용 병용	0	1	3	3	0	1	8
기타	2	2	8	5	0	0	17
전체	8	7	24	21	1	2	63

자료 : 설문조사

표 8. 종업원 채용방법과 채용이유

채용이유 \ 채용방법	고객에게 원만한 대응	상대적으로 근면하므로	생활습관이 비슷	사고방식이 답아서	민족간 상호부조	일을 잘하니까	기타	전체
일본인 채용	5	1	0	1	0	0	0	7
일본인 쪽을 선호	5	1	0	0	0	1	0	7
동포 채용	0	2	5	0	7	0	0	14
동포 쪽을 선호	0	1	6	3	5	0	2	17
기타	0	0	0	0	0	0	2	2
전체	10	5	11	4	12	1	4	47

자료 : 설문조사(2005.12~2006.1)

주 : 미주 1) 참조

C씨는 사업과 일상생활을 구분해서 민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재일한인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민족에 대한 의식은 이렇게 상공회나 사업상의 거래, 그리고 민족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한편, 많은 재일한인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의 노동시장의 개방화로 인하여 수주처를 중국으로 돌리고 있는 기업들이 증가하여 재일한인들과 같이 대기업으로부터의 하청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제조업자들은 심한 타격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씨와 같이 단순 공정작업을 중국에다 의뢰하여 제품생산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제조업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제조업계의 타격은 금후 재일한인 후계자들의 직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C씨의 공장 종업원은 일본인 1명뿐이었는데, 정밀도를 요하는 작업만을 본인의 공장에서 직접하고, 대

량생산을 요구하는 공정은 상하이에 있는 공장에 하청을 주기 때문에 많은 종업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C씨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데에는 일본인이든 같은 동포든 누구라도 관계없으며, 단지 중요한 것은 하려는 의욕이라고 했다.

그런데 종업원을 채용할 때 같은 정도의 작업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국적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것이며, 종업원 채용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관한 설문내용에서는 표 7에서와 같이 전체의 약 77%가 같은 민족을 고용하는 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채용방법으로는 소개에 의존하는 경우가 46%였으며, 소개와 공개채용을 병행하는 경우까지 합하면 전체의 59%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에는 민족간의 유대관계가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종업원을 채용하는 기준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표 8).

즉 실제로 재일한인 자영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는

표 9. 동업자 모임에 참석여부

업종	참 가				불 참 가			
	동포끼리 모임	동포와 일본인의 모임	일본인과의 모임	전체	동포끼리 모임	동포와 일본인의 모임	일본인과의 모임	전체
요식업	6	0	1	7	7	1	1	9
금융, 보험업	2	0	0	2	0	1	0	1
유기업(파친코, 마작 등)	1	1	0	2	1	0	0	1
도·소매업	1	1	0	2	4	0	1	5
건설업	4	5	4	13	3	0	0	3
운수·통신업	0	0	0	0	2	0	0	2
제조업	6	0	3	9	6	0	0	6
부동산업	1	0	0	1	3	0	0	3
폐품회수, 고물상	0	1	0	1	1	0	0	1
폐기물처리업	1	2	0	3	0	0	0	0
이·미용업	0	0	1	1	1	0	0	1
전체	22	10	9	41	28	2	2	32

자료 : 설문조사(복수응답)

주 : '일본인'에는 귀화한 한국·조선인이 포함되어 있음.

방법은 '고객에 대한 원만한 대응', '근면성' 등의 기준을 적용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심층면담에서도 민족끼리의 상호부조나 민족간의 연대감보다는 일이 우선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의 의견이었다.

한편,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동포들과의 모임은 실질적으로 없으며, 모임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 A씨나, 지면관계상 충분히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츠루하시(鶴橋)에서 주로 제사나 고사에 사용하는 돼지고기를 삶아서 파는 D씨(50대)와 같이 도·소매업이나 요식업에 종사하는 경우, 동업종간의 경쟁으로 인한 배척관계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D씨는 고향 친목계에는 참석하고 있으나 동업종끼리는 경쟁이 심하여 상호협력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츠루하시는 식료품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도·소매점과 한국음식점이 모여 있는 '코리아 타운'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다. 그런데 이곳의 자영업자들은 동업종, 이업종 관계없이 모두 경쟁관계에 있고 서로간의 협력은 전혀 없다고 한다.

표 9는 동업자끼리의 모임에 참가여부를 업종별로

분석한 것이다. 업종에 따라서 민족간의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과 그렇지 않은 업종이 나타나는데 건설업·제조업과 같이 민족간의 유대가 비교적 강한 업종과 도·소매업과 같이 비교적 유대관계가 약한 업종, 그리고 요식업과 같이 중간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이 나타나는 이유로는 거래처 및 주 고객의 국적과 함께, 업종간의 정보교환과 협력이 필요한 업종인가, 업종간의 경쟁이 심한 업종인가와 같은 업종별 특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동업자모임, 혹은 같은 민족끼리의 모임의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과 요식업과 같은 경우에는 동포들간의 유대관계가 미약했지만, 건설업을 비롯한 일부업종에서는 업종의 특성상 오히려 민족관계를 더욱 중시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복지관계의 일을 하고 있는 E씨(40대)는 주로 동포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예전에 근무했던 곳은 일본인이 운영하는 복지회사로,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다. 회사가 있던 東大阪는 동포는

거의 없는 곳이었으므로 고객의 대부분이 일본인이었다. 3년간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은 후 금년 2월에 독립했다. 현재의 회사가 있는 곳은 동포들이 밀집한 지역이므로 재일동포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활동하고 있다. 재일동포도 보험금만내면 고령자연금, 개호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호보험에 관한 안내서는 오사카시에서만 한글로 나온다. 개호비는 90%는 보험에서 나오고, 나머지 10%를 개인이 내게 되어 있으나, 수입이 없는 사람은 그 10%도 국가에서 부담해 준다. 그런데 재일동포 고령자의 개호를 위하여 일본인 복지사가 찾아갔을 때 기술적으로는 문제는 없으나 식습관이나 언어가 잘 맞지 않아서 서로 어려움이 많다. 1세 중에는 일본어로 의사소통이 잘 안되기 때문에 복지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일본인은 복지사의 도움을 그다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데 동포 고령자는 친척이외에는 도움을 받으려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인 복지사가 찾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러한 동포 고령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재택개호를 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우리와 같은 개호업종사자는 구역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일하고 있으며,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동포끼리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

이제까지의 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주로 일본인 고객이나 업자들과의 거래가 많은 업종인 경우에는 민족간의 네트워크가 약하다. 이들은 원만한 거래를 위해서는 때로는 자신이 한국인임을 감추기도 한다. 반면, 주로 고객이나 업자들이 같은 민족일 경우에는 민족간의 관계를 강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동업자들끼리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하지만 동업자들끼리의 경쟁이 심한 업종,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식자재판매업과 같은 경우에는 업자들끼리의 모임에는 거의 참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민족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에 있어서도, 민족금융기관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점도 그 요인이 되지만, 일반금융기관에 의존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면 특별한 이익이 없는 한 구태여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족금융기관을 이용하려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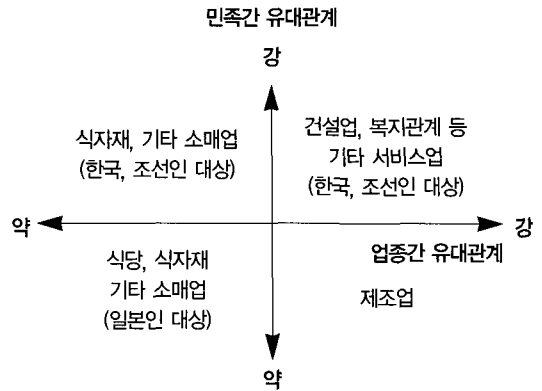


그림 2. 재일한인 자영업자의 업종에 따른 민족간 유대관계

5. 결론

현재 재일한인들의 경제활동의 중심세대는 2세·3세로서 부모세대들보다 고학력이며 언어적으로도 자유롭다. 하지만 그들이 획득할 수 있는 직업선택의 기회는 일본인과 비교하여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들이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기대수준과 달성결과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택한 방법 중 하나가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재일한인 중소규모 자영업자의 직업과 민족간의 유대관계가 시대와 세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오사카시 이쿠노구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종족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쿠노구의 재일한인 자영업자들은 종족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그들의 직종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많은 이주민들이 정착초기단계에는 종족자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나, 점차 다수사회로의 적응과 정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의존도는 사회적·정치적인 외부환경의 변화로 소수민족에 대한 제재가 강해지면 다시 강화되기도 한다.

재일한인의 경우, 일본으로의 이주 초기에는 주로 노동자 계층이 많았으나 점차 전문직종사자와 자영업자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직업구조의 변화는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상승시켰다. 이러한 변화에는 물론

시대적인 흐름과 함께 재일한인의 세대교체와 학력신장이라는 요소가 작용하였지만, 그러한 요소가 작용할 수 있도록 재일한인에 관한 일본인 및 일본사회의 인식, 그리고 재일한인을 비롯한 재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변화해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종족자원의 이용 측면에서 볼 때, 자영업 종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초기단계에는 민족금융기관의 이용이나 기업간의 거래, 종업원 고용에 이르기까지 종족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였고, 주요 고객 역시 같은 민족을 대상으로 한 업종이 많았다. 하지만 점차 재일한인의 직업구조가 다양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종족자원에 대한 의존도도 역시 다양화되어 갔다.

또한 최근에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이제까지 주로 대기업의 하청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재일한인 제조업자들은 중국시장과의 경합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존재는 한국인 자영업자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한국인 제조업자들 가운데에는 업종을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업종을 전환시킨다하더라도 예전과 같이 종족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그다지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업종에 따라서는 오히려 종족자원의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이 재일한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판명되었다.

결국, 민족간의 유대관계의 유지 혹은 배제는 그들을 둘러싼 사회 및 경제구조에 따라 좌우되고, 그 결과는 다시 재일한인과 일본인과의 관계를 좌우하게 되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재일한인 집주지역인 오사카시의 이쿠노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민에게는 설문조사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하여 본 조사에 대한 응답자가 72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쿠노구라는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였다는 점에서 재일한인의 민족관계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재일한인의 민족관계는 직업과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그들의 거주지역 혹은 취업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재일한인의 민족간 유대관

계의 변화양상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지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차후의 과제로 하고자 한다.

註

- 1)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은 그들의 국적에 따라 '재일 한국인', '재일 조선인'으로 구별하며, 이들을 다 합한 개념으로 '재일한국·조선인'(줄여서 '재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혈연의 개념을 강조하기 위하여서는 '재일동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민이라는 의미에서는 '재일교포'라고도 한다. 일본으로의 도항시기에 따라 해방전후에 입국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이들을 '올드 커머', 1980년대 해외여행 자유화조치 이후에 입국한 이들을 '뉴 커머'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본 고에서는 해방전후에 식민지라는 역사적인 배경으로 입국한 '올드 커머'를 중심으로, 현재 그들의 국적과는 관계없이 일본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나타내는 '재일한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2) 자영업이란 본인이 직접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개념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그 중에서 이혜경(1996)은 자영업자란 소득을 위하여 일하는 근로자이지만,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자본가나 자신의 노동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와 노동자의 중간에 위치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고에서 의미하는 재일한인 자영업자란 글로벌적인 네트워크와 기업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대규모 기업경영자가 아닌, 대부분의 재일한인들이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영업자를 의미한다.
- 3)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와 단체에 의하여 이쿠노구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가 남용되어 조사대상자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사례도 왕왕 있었다. 그러므로 이쿠노구의 자영업자들 간에는 한국에서 온 연구자에 대한 불신이 팽만해 있었고, 본 조사에서도 응답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응답자수는 72건에 불과하게 되었다. 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방법과 결과처리에 있어서 주의를 요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4) Perlmann(1988), 5. 단 여기서는 최협(2002), 221에서 재인용
- 5) 종족자원은 "자신의 종족집단 구성원들로부터 이용가능한 한, 혹은 그 종족집단의 유산에서 비롯되는 자원과 도움의 형태"(Min and Jaret, 1985, 432. 단 여기서는 설병수, 2002, 277에서 재인용)를 가리킨다.

- 6) 식민지시기의 재일한인의 국적은 일본이었으나, 본적지가 '조선(반도)' 라는 이유로 '조선인' 이라고 불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의 재일한인의 국적여부와는 관계없이 식민지시기의 재일한인은 '조선인' 으로 표기한다.
- 7) 1973년의 효고현(兵庫縣)의 조사에 의하면, 장래의 희망으로서 '상업' 이라고 한 사람이 1위로 48.1%를 차지하였고, 자녀의 장래희망에 관한 항목에서도 '직공' 이 되는 것, '상업을 운영하는 것' 이 각각 37.7%와 34.4%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직종을 압도적으로 물리치고 있다. 상인이나 공장 노동자가 되는 것이 재일조선인의 작은 희망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들이 처한 열악한 경제 환경을 알 수 있다(西成田, 1997, 76).
- 8) 이쿠노구가 재일한인의 밀집거주지역으로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데에는 '코리안 타운' 으로 더 알려진 '조선시장' 과 역사권에 위치해있는 '국제시장' 이라는 재일한인 중심의 재래시장의 역할이 컸다.
- 9)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사(1986)에 의하면, 재일한인 및 중국인 자영업자 271명 중에서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융자받으려했을 때 민족적인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31%, 자신은 그러한 경험이 없었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들은 적이 있다는 자가 12.5%로 나타났다. 한편, 차별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도 처음부터 융자받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다는 사람들도 22.1%였다. 이렇게 볼 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민족차별을 실제로 체험한 자와 그러한 차별을 예상하고 융자받기를 미리 포기했던 사람까지 합한다면 65.6%에 달했다.
- 10) 한편, 조선계 금융기관의 경우, 일본의 거품경제의 붕괴보다도 김정일의 '1986년 지시' 에 따라 과다한 액수의 북한으로의 송금요구와 그에 따른 불법적인 투기와 오용, 그리고 일본 금융 감독기관의 영성한 검사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조선계 동포들의 불신을 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동포들이 민족 금융기관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자금의 회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의 송금은 계속되어야 했던 것이 재정악화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朴斗鎮, 2002)

文獻

- 박경태, 1995, "외국인노동자가 자영업 노동시장에 끼치는 영향: 미국의 아시아계 이민 노동자와 흑인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성공회대논총, 8, 240-272.
- 백형엽, 2004, 재일 한인사회의 경제적 특성: 오사가지역을 중심으로, 세계한상대회보고서.
- 설병수, 2002, "호주내 한인들의 소규모 사업과 종족자원의 두 얼굴," 한국문화인류학, 35(2), 275-301.
- 유의영, 2004, "한인사회공동체적 기반으로서의 미주한인 교회," 신학논단, 35, 159-198.
- 윤인진, 2004, 코리아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적응·정체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서울.
- 이광규, 1981, "재일한국인의 조사연구: 오사카 이쿠노구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13, 1-52.
- 이광규, 1982, "재일한국인의 조사연구 2," 한국문화인류학, 14, 1-30.
- 이영민, 1998, "미국 주요도시의 산업재구조화와 노동시장의 민족별 분화: 집단정체성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33(4), 575-587.
- 이혜경, 1996, "로스엔젤레스의 한인과 흑인의 자영업비교," 사회과학연구, 13, 89-111.
- 장선미, 2004, "재미한인 자영업소기업 실태분석," 한국동북아논총, 31, 182-212.
- 조현미, 2000, "재일동포의 집주지역형성과 민족정체성의 변화: 요세바 고도부키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35(1), 141-157.
- 최병목, 1996, "미국에서 한인 자영업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19(2), 139-173.
- 최석신·임채완 등, 2005, 재일 코리아사회의 경제환경, 집문당, 광주.
- 최협, 2002, "미국의 흑인과 유태인집단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동북아논총, 23, 211-229.
- 青木秀男, 2000, 現代都市の都市下層, 明石書店, 東京.
- 小沢有作, 1978, 近代民衆の記録: 在日朝鮮人, 新人物往来社, 東京.
- 神奈川県内在住外国人実態調査委員会, 1990, 日本のなかの韓国・朝鮮人, 中国人, 明石書店, 東京.
- 金明秀, 1995, 在日韓国人の学歴と職業, 年報 人間科學 第16号, 1-16.
- 金明秀, 1998, 自営業と職業移動, 佐藤嘉倫編, 1995年SSM調査シリーズ 3: 社会移動とキャリア分析, 1995年SSM調査研究会, 65-84.
- 金明秀·福岡康則, 1996, 在日韓国人青年の生活と意識, 東京大學出版部, 東京.
- 在日高麗労働者連盟, 1987, 在日韓国・朝鮮人の労働実態調査, 新幹社, 東京.
- 在日高麗労働者連盟, 1992, 在日朝鮮人の就業実態調査:

- 大阪を中心に, 新幹社, 東京.
- 在日本大韓民國民團, 2002. 3, 在日韓國人意識調査 幹部報告書, 東京.
- 徐龍達, 1987, 韓國朝鮮人の現状과 未來, 東京.
- 曹賢美, 1998, 在日韓國·朝鮮人の集住地域の形成と実態, お茶の水女子大学博士学位論文.
- 成田孝三, 1995, 世界都市におけるエスニックマイノリティの視点, 經濟地理学年報, 41(4), 308-329.
- 福本拓, 2004, 1920年代から1950年代初頭の大阪市における在日集住地の変遷, 人文地理, 56(2), 154-169.
- 朴斗鎮, 2002, 朝銀系信用組合再生への提言: 朝銀は在日同胞の手に戻らなければならない, コリア国際研究所.
- 関寛植, 1994, 在日韓國人の現状と未來, 白帝社, 東京.
- 森木和美, 1989, 在日韓國·朝鮮人および中国人の職業的地位形成過程の研究, 社会学紀要, 60.
- 在日本朝鮮人商工聯合會 經濟研究室, 2004, 同胞經濟研究, 13.
- Ahn, H.-H. and Hong, J.-P., 1999, The evolution of Korean ethnic banks in California, 지역사회연구, 7-2, 97-120.
- Bonacich, E., 1973, A theory of middleman minorit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7, 547-559.
- Min, P., 1991, Korean immigrants' small business activities and Korean-Black interracial conflicts, in Kwak, T. H. and Lee, S. H.(eds.),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Present and Future*, Kyungnam University Press, Masan, 13-28.
- Min, P., 1994, The middleman minority characteristics of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23(2), 179-202.
- 교신: 조현미, 702-701, 대구시 북구 산격동,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이메일: hmjo@knu.ac.kr, 전화: 053-950-5228)
- Correspondence: Jo, HyunMi, Department of Geography, College of Social Scienc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702-701, Korea(e-mail: hmjo@knu.ac.kr, phone: 053-950-5228)
- 최초투고일 07. 09. 06.
최종접수일 07. 09. 18.